

통일 칼럼

北 서열 2위 조용원 전면 배치

북한 절대 권력의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는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목받는 사람이 이번 노동당 대회를 거치며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자리에 오른 조용원이다.

김 위원장이 시찰할 때 양팔 비람으로 수행하는 간부들 충성도를 관리하는 등 김정일은 북심으로 통해왔다. 최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국무위원회,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로 꼽히던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 자리다. 조용원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리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직책만 놓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 이은 '실질적 2인자'라는 평가다.

1957년생인 조용원은 자강도 출신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정복규
논설위원

졸업 후 강원도 당 조직부 지도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중앙당 조직부를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조용원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다.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뒤를 돌아 그를 부르는 모습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자세를 낮춰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미소까지 지어 보이는 모습은 그가 김정은 체제의 실세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었다.

이후에도 김 위원장이 가는 곳이면 그림자처럼 수행을 이어간 조

원의 위상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더욱 확고해졌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위원회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 당·정·군의 핵심 보직을 모두 차지했다.

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디자인의 가죽 코트를 입고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승진 가도를 걸어온 비결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내부 결속 및 충성도 관리에서 성과를 보여준 점이 꼽힌다.

실제로 조용원은 고위 간부들의 무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

시군에서 발생한 간부 부정행위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스스로는 늘 낮은 자세로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뛰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2023년 8월, 김정은 위원장이 태풍 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변군 농장들을 시찰했을 당시 조용원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양팔 비람으로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용원은 항상 낮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기 관리를 잘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용원 인사는 단순한 인적쇄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복신을 전면에 내세워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산이다. 조용원의 2인자 부상은 북한의 용병술의 또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항일 빨치산 2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최용해였는데 이 세대가 쇠퇴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도 공존한다. 독재 권력에서 2인자는 최고지도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용도 폐기될 수 있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독자제언

봄철 인파 속 안전, 모두의 관심 필요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지면서 공원과 축제장, 관광지 등 다중인구 밀집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안전 의지도 함께 필요하다.

다중인구가 모이는 장소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의 넘어짐 사고, 밀집에 따른 충돌, 소지품 분실 및 절도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거나 한곳에 집중될 경우 예상치 못한 혼잡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이동 시 주변을 살피고 무리하게 밀거나 뛰는 행동을 삼가야 하

며, 귀중품은 몸에 지니고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혼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주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봄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과 행사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은 특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함께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따뜻한 봄날의 즐거움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중인구 밀집지역에서는 한층 더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 작은 배려와 안전 의식이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해인 고청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내 · 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과 악수하는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리원 대만 국민당(KMT) 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설

세계적 거장 사갈

세계적 화가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다.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3월 10일 팔복예술공장에서 '마르크 샤갈전 기간전환회'를 열고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의 오리지널 작품 전시를 소개했다.

이번 전시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전주문화재단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오는 6월 21일 까지 팔복예술공장 A동 2층 전시실과 이팝나무홀에서 열린다.

샤갈의 오리지널 판화 유화 드로잉 등 총 350여 점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열린 샤갈 전시 가운데 역대급 규모로 마련됐다.

특히 오스트리아 대표 컬렉터 한스 페터 하셀슈타이너 이사장이 소장한 스트라비그 컬렉션의 주요 샤갈 작품이 국내 최초로 대거 공개됐다.

전시는 △사랑을 노래하다 △환상의 세계에서 △파리, 파리, 파리 △신에게 다가가다 △빛과 색채 △영원한 이방인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마르크 샤갈은 1887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프랑스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화가다. 밝고 풍광적인 초현실주의 화풍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입체파 영향을 받았으나 실제 사물을 재현하는 방식과 거리를 두고 내적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관을 추구했다.

최라카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주에서 세계적 거장 샤갈의 예술 세계를 마주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가 프랑스와 한국 간 문화 교류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충격적이다. 화재 발생 사흘 만에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됐다.

수사관들이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최근 오전 9시부터 10시간 넘게 화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표이사 등 임직원 10명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업무상 과실은 없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원인, 이후에 화재가 급격하게 연소된 부분,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대피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각도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도 유족 참관 속에 진행됐다. 9개 기관 감식팀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1층 생산 공정과 시장자가 집중된 2층 휴게 공간을 정밀 조사했다.

화재가 초기 진압되지 않고 순식간에 번진 이유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사 전에도 화재가 잇따랐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안전공업 화재 출동이 3건 정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된다. 나머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숨진 14명 가운데 13명의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 통보됐고,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DNA 정밀 감정이 진행 중이다.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